

## 새내기 간호사 2만1582명 배출

### 올해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

2020년도 제60회 간호사 국가시험에 2만1582명이 합격해 96.2%의 합격률을 나타냈다.

한국보건인력개발원은 지난 1월 22일 시행된 제60회 간호사 국가시험에 최종 2만2432명이 시험을 치렀으며, 이 중 2만1582명이 합격해 96.2%의 합격률을 기록했다고 2월 13일 밝혔다.

최근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자 수 및 합격률은 다음과 같다. 2019년에 처음으로 전체 합격자 수가 2만명을 넘어섰다.

△2015년 = 1만5743명 (96.7%) △2016년 = 1만7505명 (93.8%) △2017년 = 1만9473명 (96.4%) △2018년 = 1만9927명 (96.1%) △2019년 = 2만615명 (96.4%) △2020년 = 2만1582명 (96.2%).

여학생의 경우 응시생 1만9067명 중 1만8403명 (96.5%), 남학생의 경우 응시생 3365명 중 3179명 (94.5%)이 합격했다.

남학생 합격자는 전체 합격자 중 14.7%를 차지했다.

남학생 합격자 수는 2015년 1366명 (8.7%), 2016년 1733명 (9.9%), 2017년 2134명 (10.96%), 2018년 2344명 (11.8%), 2019년 2843명 (13.8%), 2020년 3179명 (14.7%)이다.

올해 간호사 국가고시 수석합격의 영예는 이은지(경남과학기술대) 씨가 차지했으며, 295점 만점에 282점(100점 만점 기준 95.6점)을 받았다.

합격 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및 모바일 홈페이지(m.kuksiwon.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국시원은 원서접수 시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한 응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합격 여부를 통보했다.

한편 올해 국가시험은 전국 16개 지역, 40개 시험장에서 치러졌다. 시험장은 지난해 12개 지역에서 울산, 충북, 충남, 경북이 새로 추가됐다. 시험이 치러진 16개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이다.

또한 올해부터 답안카드 채점방법이 기존 OMR 관독기에서 이미지스캐너로 변경됐다.

이진숙 기자 jslee@

##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구지역 자원봉사 간호사 모집

### 정부, 임시 선별진료센터 운영 위해

### 국가 위기 극복과 함께 해온 간호역사 간협, 전국 간호사 한마음 힘 보태

대한간호협회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지역에서 자원봉사할 간호사 모집에 적극 나섰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대구지역에서 코로나19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위해 봉사할 의료인을 모집한다고 2월 24일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구지역의

코로나19 선별검사 대상자를 기존 고위험군 외에 일상적인 감기 증상자까지 확대해 지역사회 감염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우선 임시 선별진료센터에서 검체 채취에 필요한 인력으로 간호사, 의사, 임상병리사, 행정인력, 방역인력 등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통해 국민의 건

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전국의 간호사 회원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먼저 중앙회 임직원과 전국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회장단부터 지원기로 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간호사는 신청서 양식에 △이름 △직종 △전공과목 △소속 기관 및 주소 △전화번호(사무실 및 휴대전화 모두 표

기) △근무가능 기간 등을 기재한 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대책2팀 이메일(kymrs1031@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전화 044-202-3247(김영미 사무관).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과 사명을 다하는 것이 나이팅게일 정신이자 간호사의 역할”이라며 “간호사는 독립운동, 6.25 전쟁 등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최전선에서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왔으며, 코로나19 역시 전국 간호사들의 힘을 모아 국민과 함께 이겨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대구지역 코로나19 선별검사에 참여한 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의료활동에 필요한 각종 비용 등 경제적인 보상을 더불어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을 치하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규숙·이진숙 기자

## 남자간호사 2만명 시대 열렸다

### 총 2만1042명 ... 올해 국시 합격자 3179명

우리나라 남자간호사 수가 2만명을 넘어섰으며, 한 해 배출인원 3천명을 돌파했다.

올해 치러진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남자 3179명이 합격해 전체 합격자 중 14.7%를 차지했으며, 남자간호사 수는 총 2만1042명으로 늘었다. 1962년 처음으로 남자간호사가 면허를 취득한 지 58년 만의 일이다.

남자간호사는 1962년 처음으로 면허를 취득했으며, 2005년부터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2009년 617명의 남자간호사가 탄생하며, 한 해 배출인원 500명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2013년부터 남자간호사 연 배출인원 1천명 시대가 열렸다.

2017년에는 연 배출인원이 2천명을 넘어섰으며, 전체 합격자 중 남학생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연도별로 국가시험에서 합격한 남자 수는 다음과 같다. △2004년 = 121명 (1.1%) △2005년 =

244명 (2.1%) △2006년 = 219명 (2.1%) △2007년 = 387명 (3.2%) △2008년 = 449명 (4.0%) △2009년 = 617명 (5.3%) △2010년 = 642명 (5.4%) △2011년 = 837명 (6.7%) △2012년 = 959명 (7.5%) △2013년 = 1019명 (7.8%) △2014년 = 1241명 (8.0%) △2015년 = 1366명 (8.7%) △2016년 = 1733명 (9.9%) △2017년 = 2134명 (10.96%) △2018년 = 2344명 (11.8%) △2019년 = 2843명 (13.8%) △2020년 = 3179명 (14.7%).

한편 연도별 남자간호사 수(누적인원)는 다음과 같다. 2016년에 전체 남자간호사 수가 1만명을 넘어섰으며, 2020년에 2만명을 돌파했다.

△2004년 = 829명 △2005년 = 1073명 △2006년 = 1292명 △2007년 = 1679명 △2008년 = 2128명 △2009년 = 2745명 △2010년 = 3387명 △2011년 = 4224명 △2012년 = 5183명 △2013년 = 6202명 △2014년 = 7443명 △2015년 = 8809명 △2016년 = 1만542명 △2017년 = 1만2676명 △2018년 = 1만5020명 △2019년 = 1만7863명 △2020년 = 2만1042명.

이진숙 기자 jslee@

##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으로 격상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와 관련해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월 2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감염병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 등 총 네 단계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1월 20

일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관심'에서 '주의'로 높아졌고, 1주일 뒤 네 번째 확진자가 나오면서 '경계'로 올라섰다. 감염병과 관련해 '심각' 단계가 발령된 것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기존의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 중심의 방역업무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 체계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1차장: 복지부장관, 2차장: 행안부장관)로 격상했다.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서 집중 관리하고 가능한 모든 방역조치를 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한 의료인에 대해 충분한 예우와 손실보상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5일 현재 대구시 관내 음압병실 63개 중 47개, 대구의료원과 대구동산병원에서 430개 병상을 사용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추가 지정된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대구보훈병원, 국군대구병원, 국립마산병원 등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타 기관으로 전원 조치해 3월 1일까지 약 1600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병상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인근 지역 지방의료원을 전

담병원으로 지정했으며, 입원환자를 전원해 약 870병상을 확보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구시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검체 채취와 진단 검사를 위해 2월 20일 공중보건의사 24명, 2월 22일 공중보건의사 51명과 간호사 10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전담병원 운영을 위해 2월 23일 의사 38명, 간호사 59명, 방사선사 2명, 임상심리사 2명을 지원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2월 25일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893명이다. 이중 863명이 격리 중이고, 22명이 격리해제됐다. 사망자는 8명이다. 간호사 16명이 확진자로 알려졌다.

청도대남병원 정신병동에 입원 중인 확진자는 '코호트 격리'를 했다. 코호트 격리는 특정 질병에 같이 노출된 사람을 동일 집단(코호트)으로 묶어 격리하는 조치를 뜻한다.

정규숙 기자 kschung@

3·1 운동 101주년

2020 세계간호사의 해

# 독립운동가 간호사 34인 자랑스러운 그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임수명 박자혜 정종명 이정숙 이성완 박원경 탁명숙 김태복 노순경 이도신 김효순 박덕혜 이아주 채계복 한신광 함귀래 홍덕주 김근석 김안순 김화순 박옥신 윤진수 장윤희 조명숙 김응숙 김오선 송정현 최혜순 최승원 이애시 김은도 장옥순 박봉남 김여운

근대 간호교육을 통해 배출된 간호사들은 전문직업을 갖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았으며 지식인으로서 사회지도자로서 역할을 다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엄혹한 시기 뜨거운 민족의식과 기개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고 구국의 일념으로 만세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독립운동가 간호사들은 독립만세운동, 군자금 모집, 적십자활동, 사회운동, 첩보활동, 비밀연락, 독립군 규합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국외에서도 항일운동과 간호사 양성교육에 힘썼습니다.

독립운동가 간호사들의 자랑스러운 이름을 기억하고 고귀한 정신을 본받아 대한간호협회는 위대한 간호역사를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